



이 순간을 위해 고단한 한 시즌을 버텼는지 모른다. 신한은행 선수들이 우승 기념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끝낸 뒤 우승 모자를 던지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촬영 | 김준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un

편집 | 강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트위터 @mikkang



신한은행 우승 사진 더 보기

신화된 신한...이번엔 젊은피가 1냈다

삼성 김상준 사실상 경질 주가폭등 전창진 어디로?

전 감독 "KT 제계약 우선...떠날 수도 있다"



챔피언 MVP 하은주가 골망을 자르는 우승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82-80 4Q 역전극...KB에 3연승
하은주 26점·11R '챔프전 MVP'
임달식 감독 "6연패 선수들 덕분"



〈챔프결정 3차전〉

순도 100%의 무결점·퍼펙트 우승이다. 안산 신한은행이 마침내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시즌 연속 정규시즌-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30일 청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 2011~2012 여자프로농구' 청주 KB국민은행과의 챔피언 결정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82-80으로 이겨 패조의 3연승으로 2007년 겨울리그 이후 6시즌 연속 패권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신한은행 지휘봉을 잡고 최근 5시즌 연속 통합우승의 기쁨을 누린 임달식 감독은 여자프로농구 부동의 명장 자리를 지키며 또 한번 자신의 농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았다. 임 감독은 "베테랑들의 은퇴와 이적 속에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시즌 초반부터 쉽지 않았다"며 "챔프전에 와서 2차전까지 쉽게 이겼지만, 3차전 역시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많은 준비를 했다"고 연속 우승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암 투병 중인 부친 임동원 씨가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한 가운데 임 감독은 "우승 트로피가 투병 중이신 아버님께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히로인은 역시 하은주였다. 2쿼터에 등장해 11점을 몰아치며 반격 분위기를 이끈 하은주는 4쿼터에만 또다시 11점을 쏴아 넣는 등 이날 26점·11리바운드로 맹활약하며 2년 연속 챔프전 MVP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신한은행은 2차전까지 불을 뿜던 외곽포가 터지지 않아 32-35, 3점 뒤진 채 전반을 마치는 등 한때 고전했다. 3쿼터 초반 이연화의 3점슛으로 동점을 만든 뒤 김단비가 외곽포를 터뜨리고 하은주가 골밑을 단단히 지키며 차곡차곡 점수를 벌여나갔고, 4쿼터 들어 승기를 잡았다.

사상 첫 챔프전 우승을 노렸던 국민은행은 72-77로 뒤진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정선민이 부상으로 물러난 데다 2점차로 뒤진 종료 12초 전에는 변연화까지 상대 강영숙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한 뒤 5반칙으로 퇴장당해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종료 3초 가량을 남기고 단진 박세미의 3점슛마저 링을 외면하면서 3점패를 당한 국민은행은 안방에서 신한은행의 우승 행가를 구경하는 처지로 밀려났다. 변연화는 25점·10도움으로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삼성 김상준 감독이 사실상 경질되면서 KT 전창진 감독(사진)의 거취에 농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30일 "김상준 감독이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삼성도 "윗선(그룹)에 올린 여러 안 중 (경질)에 포함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삼성 감독직이 공석이 되면서 올 시즌을 끝으로 KT와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전창진 감독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다. 이미 KT는 전 감독과의 제계약의사를 공표한 상황이다. KT 권사일 단장은 "우리의 안은 모두 준비가 됐다. 다음 주초(4월 2일) 전 감독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감독의 팬을 자처하는 KT 이석재 회장은 이미 스포츠단에 "명장에게 걸맞는 최고 대우를 하라"고 연질을 준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 전 감독은 최고의 카드다. 동부 사령탑 시절 정규리그 우승 3회, 챔피언 결정전 우승 3회를 차지한 전 감독은 KT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돌풍을 일으켰다. 하위권에 머물던 KT를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삼성으로선 젊은 감독을 내세웠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베테랑 사령탑을 원한다. 삼성 이석훈 단장은 "사실 후보군이 많지는 않다. 전 감독은 좋은 카드"라고 밝혔다. 삼성은 전 감독과 불일점 속에서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전 감독은 "양쪽 사이에서 딜을 하고 싶지는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 감독이 KT에 전한 주요 요구사항은 코칭스태프의 처우 개선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식솔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전 감독은 "이 부분만 구단에서 받아들여준다면 KT에 남을 것이다. 내 개인에 대한 조건은 구단에서 알아서 해줘도 좋다"며 KT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코칭스태프의 처우 개선 문제를 KT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언니들 빈자리로 김단비·이연화 떴다

■ 신한은행 6연패 원동력

전주원(40)도, 정선민(38)도 없다. 하지만 여전히 신한은행은 최강자다. 여자프로농구 정규시즌-챔피언 결정전 통합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면서 당분간 그 누구도 넘볼 수는 없을 신기원을 열었다.

시즌 개막 전만 해도 확실할 수 없는 우승이었다. 지난해 8월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

에 임달식 감독과 주전선수 6명이 차출돼 시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게다가 팀의 두 기둥이었던 전주원과 정선민은 각각 은퇴와 이적(KB국민은행)으로 큰 빈자리를 남겨놓았다. 신세계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패하면서 출발조차 불안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신한은행은 곧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갔다. '언니들'의 역할 이상을 해내기 위해 젊은 선수들이 독기를 폈었다. 다른 팀과

전주원 은퇴·정선민 이적 공백
김연주 등 성장...세대교체 큰 힘

1위 자리를 놓고 겨룰 새도 없었다. 2라운드부터는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챔피언 결정전 2연승으로 삼겹살 끝냈다.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덕분이다. 김단비 이연화 김연주 등 젊은 선수들이 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임 감독은 2~3시즌 전부터 나이 많은 주전들의 체력을 안배해가면서 젊은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꾸준히 중용해왔다. 베테랑 선배들과 몸을 부

딛히며 함께 승리를 맛본 선수들은 시나브로 꾸준히 성장했다. 결국 '언니들 없는' 신한은행을 최강자로 이끌었다.

이번 시즌부터 지도자가 된 전주원 코치는 "감독님은 훈련할 때는 무섭기로 소문났지만 코트 밖에서는 선수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시려고 노력하신다. 많은 걸 배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임 감독의 리더십에 위생우, 전주원 두 코치의 조력이 뒷받침된 것은 물론. 구단의 지원도 든든했다. 신한은행 농구단 속소는 각종 시설과 식단이 모두 여자프로농구에서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배영은 기자 yeh@donga.com 트위터 @goodgoer

최나연 "부동산이 좋아"...50억대 원룸건물 통큰 투자

■ 프로골퍼들의 재테크 비법

최나연 짬짬한 임대수입...美주택 구입도
배상문 판교 단독주택 등 부동산 인기만점

유소연·안신애 스크린골프장 사장님 변신
저축번호 이보미 "든든하고 안정적 수입"

많은 연간 수입의 원천 수입을 올리는 프로골퍼들에게 돈 버는 것만큼이나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골퍼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재테크 1순위는 부동산이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 상금왕에 오른 배상문(26·캘리포니아)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부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짓는 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건물에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스크린골프까지 설치했다. 김하늘(24·비씨카드)

은 경기도 용인의 덕평 인근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부모님께 선물했다.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재테크는 부동산 투자다. 최나연(25·SK텔레콤)과 신지애(24·미래에셋) 오지영(24) 등은 미국 진출과 동시에 집을 구입했다. 최근엔 서희경(26·하이트)도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70만 달러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리스를 이용하다 지난해 12월 집을 샀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게 한국 선수들이 서둘러 집을 구입하는 계기가 됐다는 후문. 반대로 2000년대 초반 미국으로 건너가 집을 구입했던 선수들 중엔 집값이 하락해 고민하는 선수들도 있다. 2000년대 초반 대개 100만 달러 안팎에서 집을 구입했지만 현재는 20~30% 가까이 떨어져 올상이다.

●스크린골프에 건물 임대까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들도 늘어나고 있다. 유소연(22·한화)과 안신애

(22·우리투자증권)는 스크린골프장 운영으로 짬짬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유소연은 서울에서 2곳, 안신애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스크린골프장을 오픈했다. 유명 프로 선수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찾는 이도 많다.

임대사업도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최나연과 이보미(24·정관장)는 원룸과 상가를 지어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최나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50억원대 원룸형 건물, 이보미는 고양인 강원도 인제에 상가를 지었다. 이보미는 또 미용을 전공한 동생에게 경기도 용인에 미용실을 차려주기도 했다.

직접 투자보다 전문가에게 맡겨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재테크 지식이 부족한 선수들은 안정된 수입을 위해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를 선호한다.

절세도 재테크의 한 부분이다. 해외에서 돈을 버는 골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재테크보다 효과



최나연

적일 수 있다.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현지에서 사업까지 낸 경우도 있다. 아는 만큼 버는 게 세습이다.

시대에 따라 재산 불리기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저축만큼은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이보미의 부친 이석주 씨는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은행에 맡겨두는 것만큼 든든하고 안정적인 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양희영, LPGA 나비스코 첫날 6언더파 1위
양희영이 미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코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첫날 단독 선두로 나섰다. 양희영은 3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6702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우승 후보 청야니(대만·4언더파 68타)를 2타 차로 밀어내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웨스트브룩 36점 폭발...오클라호마시티 5연승

오클라호마시티가 30일(한국시간)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2011~2012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그 LA 레이커스와의 원정경기에서 36점·6어시스트를 기록한 러셀 웨스트브룩의 활약에 힘입어 102-93으로 승리하며 5연승으로 서부 콘퍼런스 1위를 굳게 지켰다.

오늘부터 한·일 아이스하키 정기교류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3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 다이도링크에서 제1회 한·일 아이스하키 정기교류전을 연다.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7차례 맞붙어 1무6패를 기록했다.

오늘 경주서 '코오롱 고교 구간 마라톤대회'

제28회 코오롱 고교 구간 마라톤대회가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배문고, 상지여고를 비롯한 전국 사·도대표 2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시내 마라톤 공인코스에서 열린다.